

은 그들의 치열한 상흔을 열볼 수 있었고 화려하게 장식된 상품 진열대에 끼지 못하고 한구석에 싸구려로 취급되어 박혀있는 made in Korea를 보고 자존심이 상했던 일도 잊을 수 없다.

같은 동양 문화권의 일본은 여러 면에서 우리와 비슷하다. 생김새와 사고방식이 그렇고 우리가 바둑을 두고 고스톱을 치듯이 그들도 마작과 빠징고를 즐기고 가라오게 또한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생맥주를 마시며 서로의 우의를 쌓아 보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을 느낌은 나만의 생각은 아닌듯 하다.

마지막으로 다음 연수를 떠나는 이를 위해 하고 싶은 이야기로 사전에 보다 철저한 연수준비를 하라고 권하고 싶다.

특히 일본어는 어느정도 능숙히 구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의료진의 경우의학용어에 대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보고자하는 부서의 사전 지식을 갖고 출발함이 충실한 연수의 지름길이다.

약 80일간의 일본 생활은 나에게도 평생 귀중한 추억이 될 것이며 연수기간 중 보고 배우며 느낀 점은 앞으로의 나 자신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병원 발전에 일조를 하였으면 한다.

그 동안 동고동락하신 김도섭 선생님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주위의 여러분 그리고 성 마리아 병원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환자실에서 필자(右)

## □ 研修記 □

# 성 마리아병원 研修記(2)

김 춘 자 수녀

대구파티마병원 심전도실장



가톨릭병원협회의 추천으로 가게 된 日本 福岡縣에 있는 성 마리아병원 연수의 기회는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게 해 준 시간이 되었다.

먼저 일본어와 영어의 사전 테스트는 낭패감까지 느끼게 했고 4개월 좀 안되는 일본어 습득 기간 중 내내 느껴야 했던 불안감과 부끄러움은 말로 할 수가 없었다.

국제화시대 그것도 첨단의료기기를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종사자로서의 성장과 자기발전을 위한 평소의 노력이 소홀했음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모든 환자들을 위한 길이 됨을 잊고 있었다는데 대한 부끄러움이 컸던 것이 사실이었다.

6월 9일 오후 12시 20분, 난생 처음의 외국행, 기대와 호기심을 품고 김해공항을 출발한지 한시간도 안되어서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했다.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 이란 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공항에서 자동차를 타고 한시간 정도 달려 久留米市라는 시골같이 조용한 곳에 위치한 성 마리아 병원에도착했다.

숙소에 들어가 방을 배정 받고 병원 당국의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병원의 각 부서를 방문하고 인사를 했다. 다음날 동행하신 관리과 최계장님은 시설과로 나는 임상병리과로 나누어져 연수에 들어가게 되었다. 내가 간 임상병리과에는 E.K.G, E.E.G, U.C.G P.F.T 등이 있었고 내과 소속의 내시경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책임자인 기사장님이 일정과 계획을 세워 주시며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물으시길래 순서대로 라고 했다. 맨 처음에는 검진센터에서 E.K.G, 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병원에서 다루고 있는 기계와는 좀 다르지만 늘 하던 일이라 손 쉽게 할 수 있었으나 행여 환자가 무엇을 물어 오면 어떻게 대답하여야 하나 하고 신경을 너무 써서 오전 근무를 하고 나니 파김치가 되고 말았다. 여기서 기계를 중앙에 두고 침대가 양 옆에 놓여 있어 동시에 두 명의 환자를 찍게 되니 매우 능률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이 들었다.

이 검진센터에는 각종 첨단 검진장비를 구비하고 있었으며 검진자를 위한 병실까지 갖추어 놓고 있어 매우 부럽기도 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외래 E.K.G 였는데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9명의 여자 직원들은 E.K.G, U.C.G, E.E.G, 를 주로 맡고 2명의 남자직원은 E.K.G portable 과 중간중간 U.C.G 와 24시간 E.K.G, 를 맡아하고 있었다. 다음에 간 곳이 신경의과 중환자실. E.E.G portable 를 가게 되었는데, 중환자실의 복도는 우리와 달리 보호자가 한 사람도 없이 조용하기만 했다. 보호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모든 간호를 간호사가 도맡아 한다고 했다. 시시각각 상태가 변하는 중환자들을 위한 철저한 환자중심의 간호체계, 의료진과 병원을 신뢰하고 간호를 맡기는 보호자, 선진화된 의료체계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듯 했다.

특히 이 중환자실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중사자들이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상냥하고 친절한 태도로 환자를 가족처럼 보살피는 모습에서 가슴 뜨거운 그 무엇을 얻은 것 같았다.

그 다음 간곳이 U.C.G, 우리병원에서는 선생님께서 직접 하시는데 이 병원에서는 U.C.G (E.K.G) 기사들이 하고 있었다. 성 마리아병원에는 많은 환자들을

검사하는데 오전중에 20-30명이 넘었고 소아환자들도 많았다. 큰 어려움없이 검사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시고 설명도 해주셨다. 탐나는 기계들이 갖추어진 U.C.G를 거쳐 위내시경실을 마지막으로 가게 되었다. 위내시경실의 분위기는 너무나 정결했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간호사 3명과 여자조무사 1명 남자조무사 2명등 여섯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4가지 마취약을 투여한 후 검사에 들어 갔는데 마취가 잘 되었는지 검사가 끝날 때 까지 신음소리 한번 없이 조용하게 끝나는 것에 놀랄 정도이었고, 의사와 간호사, 환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검사에 임하는 것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기계는 너무나 청결했고 기계를 세척하는 싱크대 밑에 렌즈와 기계가 상할까봐 고무판을 깔아서 사용하고 있는 섬세함과 자발성, 자기부문에 충실한 사람들이란 인상을 깊게 받았다. 이렇게 욕심을 내며 다니다 보니 어언 정해진 날짜가 다 되었다.

열심히 힘 닿는데 까지 배워 불려고 노력하였지만 능력부족과 언어의 미숙함에서 오는 안타까움을 무엇으로도 채울수가 없었다. 그러나 환자를 위해서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로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수도자로서 주일미사참례를 못했던 점이다. 물어서 성당을 찾았지만 미사후였다. 그 날은 대송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미사에 참례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간 밀반찬과 라면등으로 한국에서 같이 간 분들과 함께 미숙한 솜씨로나마 식사를 준비하여 맛있게 먹으며 즐겁게 보냈던 기숙사생활을 잊을 수가 없다. 미숙한 솜씨 탓에 손목에 작은 화상을 입기도 했는데 그것을 두고두고 보며 능숙하지 못함에서 오는 부주의 모자람은 이렇게 상처를 낼 수 있다는 교훈으로 삼고 싶다. 다시금 연수 장소와 기회를 제공해준 성 마리아병원에 감사를 드리고 가톨릭병원협회에도 감사 드리며 앞으로 더욱 많은 이들에게 이 좋은 연수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싶다.